

## 세상의 소망인 우리 해운대제일교회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이유)

1.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당한 공동체이다.
2.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3.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공동체이다.
4. 교회는 자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이다.
5.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공동체이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5:13)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계3:15-16)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럼, 우리 해운대제일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까?

“위대한 계명(마22:37-40)과 위대한 명령 (마28:19-20)에 순종하며, 성경의 원리(엡4:11-12)를 따라 사역하는 주님이 세우기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 우리 해운대제일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사명 선언문입니다. 이 사명 선언문에서 우리교회의 다섯 가지 비전에 나온 것입니다.

### 위대한 계명

(마22:37-40)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가슴으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한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뜻을 다한다는 것은 모든 생각과 의지를 동원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최선과 최상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최선과 최상의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곧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절대주권자입니다. 최선과 최상의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나와 주고, 돈이 있으니까 헌금하고, 여유가 있으니까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드리는 예배만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여기서 우리교회 첫 번째 비전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교회”

-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미워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 성경에 선했던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율법사에게 물으셨습니다.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내 이웃”이 아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말씀하셨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기 때문에, 혹은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돕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돕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선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 여기서 우리교회 두 번째 비전이 나왔습니다. “이웃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섬김이 있는 교회”

#### 위대한 명령

(마28:19-20)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 주님의 명령은 “제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어 구원 받고 평안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 한 시간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 생활을 하라고 하신 것은 더욱 아닙니다. ‘제자를 삼는 제자’ 내가 먼저 제자훈련을 받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가 되고,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 여기서 우리교회 세 번째 비전이 나왔습니다. “제자훈련으로 평신도를 교회와 세상의 리더로 세우는 교회”
-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려면’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가까이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가족에서부터, 이웃집과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 여기서 우리교회 네 번째 비전이 나왔습니다.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
-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사명은 다음세대에 계승되어야 합니다.
- 여기서 우리교회 다섯 번째 비전이 나왔습니다. “다음세대를 믿음의 거목으로 키우는 교회”

#### 성경의 사역 원리

(엡4:11-12)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특별한 직분들을 세우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역자들을 세우신 것은 평신도들이 교회 중심에 서서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 교회 역사에서 바극적인 일들 중 하나는 주교들이 교역자와 평신도들을 나누어서, 사역을 교역자들에게 일임하고, 평신도들에게서 사역을 빼앗아 간 것입니다. 이제 회복되어야 합니다. 모든 평신도들이 사역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우리 해운대제일교회는 주님이 세우기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우기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이루는데 헌신합니다.